

전국이 'OO일자리' ... 광주형일자리 위협

군산·울산·구미·강원형 일자리 모두 자동차 관련 사업

정부, 상생형 일자리 확산 좋지만 지역별 선택과 집중 나서야

중복·과잉 투자 부작용 클 듯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 삼아 전국에 지역 상생형 일자리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원조인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한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중인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광주와 같은 자동차 관련 산업에 집중하고 있어 중복투자와 과잉공급은 물론 자칫 지역 간 경쟁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단기간에 ‘광주형 일자리’ 모델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확산시킬 것이 아니라 오랜 노력 끝에 노사 상생 토대를 마련한 지자체별로 경쟁력 있는 업종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형일자리 사업’인 자동차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자 다음달인 2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모델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에 나섰다. 이에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퉀 뛰어들었고, 강원과 경남, 광주, 구미, 군산, 울산, 익산, 전남, 충청 등 9개 지자체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광주와 인접한 전북도와 군산시가 최근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을 갖고 전기차 생산기지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지역 간 경쟁도 예상된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16개 중소 전기차 관련업체가 옛 한곡GM 군산공장과 새만금산업단지에서 전기차 생산공장을 건립해 전기 버스, 트럭, 초소형 전기차 등을 오는 2025년까지 연간 30만대를 생산해 국내 최대 전기차 생산 단지가 된다는 게

목표다. 최근 (주)광주글로벌모터스 법인을 설립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형일자리 사업도 처음에는 소형 SUV자동차 생산이 목표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라인을 친환경 완성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어서 향후에는 전속도와 경쟁 체제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구미형 일자리’ 사업은 구미시가 LG화학과 손잡고 구미에 전기차 2차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짓기로 했고, ‘강원형 일자리’는 오는 2023년까지 4만대의 초소형 전기차 완성차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울산에서는 울산시 지원을 받은 현대모비스가 300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부품 생산공장을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각 지자체들이 앞다퉀 자동차 관련 산업을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들고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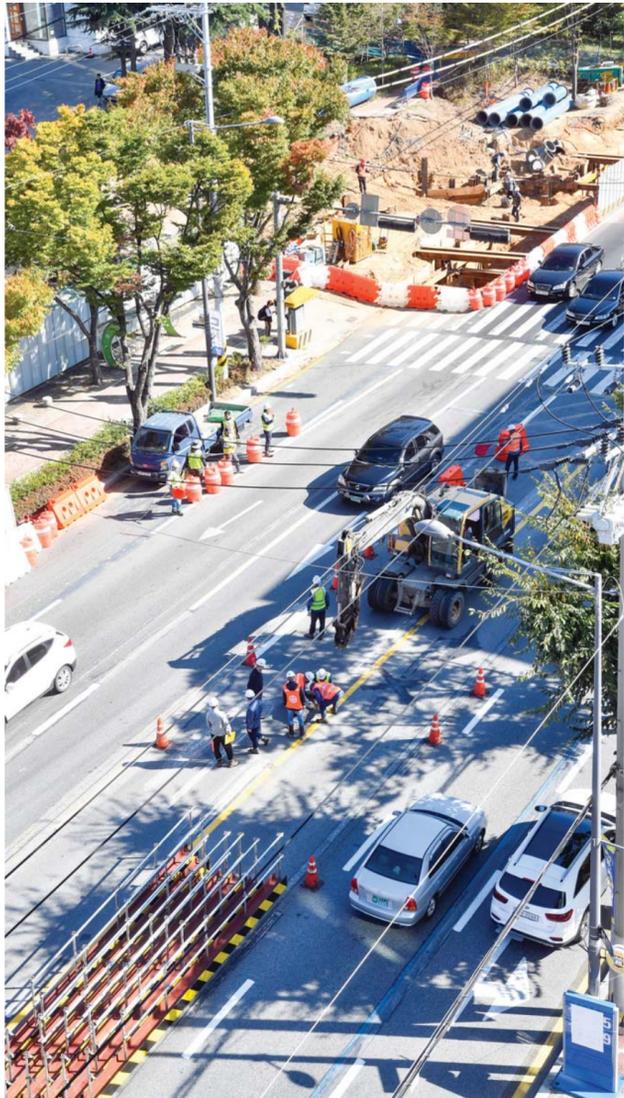
하지만, 광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 확대에 나선 뒤 6개월의 짧은 시간에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체결해 노사상생 등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지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광주의 경우 5년 이상의 긴밀한 협상을 통해 노사 양보와 사회적 대화로 이뤄진 만큼 지역 내 노사 상생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산업의 전후방 연관 효과 극대화를 위해 광주형 모델에 집중해야 할 자동차 부품산업들이 구미와 울산으로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광주만 애꿎은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각 지역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 확대는 좋은 취지이지만, 특정 산업에 몰릴 경우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늘리는 꼴”이라며 “향후에는 지자체 간 경쟁과 갈등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무작정 상생형 일자리 사업 확산에만 나설 것이 아니라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 시작 21일 오전 광주시 남구 봉선동 대남대로에서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4공구(미래 이동병원~기업은행 봉선지점) 공사가 본격 시작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시·도 체육회 민간회장 선출 어떻게 ▶2면

BTS 제이홉 '광주'를 노래하다 ▶6면

굿모닝 예향 ▶18~19면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 포기” 전남 농민단체 강력 반발

식량 자급률 24% 불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손볼 것을 요구하며 제시한 마감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 농민단체들이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6개 농민단체는 21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수입농산물 관세를 낮춰야 하고 정책 보조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미국 대통령의 트윗 하나에 통상 주권을 팽개친 정부라는 비판을 듣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량 자급률 24%, 농업소득 20년째 정체, 도·농간 소득 격차 60% 등을 보이는 우리나라가 농업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

는 대신 공약형 직불금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지만, 이는 쌀농사를 줄이기 위한 의도”라며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농민들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일부 국가를 겨냥해 ‘부당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개발도상국 지위를 손볼 것을 요구했다. 특히 WTO가 90일 이내(이달 23일)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달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에서의 개도국 특혜 관련 동향과 대응 방향을 공식 안건으로 처음 상정하는 등 관계부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연합뉴스

검찰, 정경심 영장 청구 ... 23일 실질심사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옹호활동 소송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55일 만이다. 〈관련기사 2면〉

정 교수의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검찰은 핵심 피의자로서 정 교수의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향후 정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근 부장검사)는 정 교수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와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증권사 직원을

동원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한 것과 관련해선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10개에 이른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위조된 표창장을 국내 여러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와 대학들의 입시 전형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를 구속영장 범죄 혐의에 포함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께 열릴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이 조 장관 가족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과 정치권 논란이 잦아들 수 있다. 기각될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가열되면서 거취 문제까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5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가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HNT 하나투어

추천여행지 **올 가을, 꼭 빠질 태국 THAILAND**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가을여행'을 소개합니다

동남아·대만	중국
<p>방콕 하나팩 AAFP01_1 방콕 파타야 5일, 6일 590,000원~ 수:목 3박5일, 토:일 4박6일 현지저녁>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다낭 savepack AVPF13_D 다낭 호이안 4일 443,000원~ 매일출발 3박4일 >재미날짜 있음 현지저녁>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대만 하나팩 ATPF01_2 [온천]대만-지우펀-스펀 4일 769,000원~ 주 4회 출발 >일자리형 상미 현지저녁>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대만 온천체험 >식도락</p> <p>코타키나발루 savepack AMPF02_1 코타키나발루 5일, 6일 545,000원~ 목 3박5일 및 4박6일 현지저녁>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3성급호텔 >아일랜드투어</p> <p>세부 하나팩 APPF01_A 세부 5일 일금리조트 494,000원~ 주 4-6회 출발 >일자리형 상미 현지저녁>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호텔투어 >편안마사지</p> <p>보라카이 savepack 보라카이 4일, 5일 일금리조트 484,000원~ 목 3박4일 및 4박5일 현지저녁>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서울일도 >#일과사치</p>	<p>하이난 savepack CIPF02_1 하이난 5일, 6일 특급호텔 440,000원~ 수 3박5일 및 4박6일 현지저녁>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특급호텔 >#노스동 >1일 자유</p> <p>상해 하나팩 CCPF01 상해 주가각 4일, 5일 329,000원~ 수 3박4일, 토 4박5일 현지저녁>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한글특가 >#상해서커스</p> <p>상해/샤먼 하나팩 CCPF07_A 상해/하문/고광서 4일, 5일 919,000원~ 수 3박4일, 토 4박5일 현지저녁>가이드가사경비 \$30- 선택경비 있음 #중국 특급 호텔, 지중해 >상해 전용</p> <p>상해/황산 하나팩 CCPF06_1 상해 황산 4일, 5일 549,000원~ 수 3박4일, 토 4박5일 현지저녁>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온가족여행 >#새로운</p> <p>상해/장가계 하나팩 CCPF02 상해 장가계 4일, 5일 1,099,000원~ 수 3박4일, 토 4박5일 현지저녁>가이드가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 #산악계곡 >#5일호텔</p> <p>상해/계림 하나팩 CCPF05_W 상해/계림 4일, 5일 1,199,000원~ 수 3박4일, 토 4박5일 현지저녁>가이드가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 #강원도 >#4일도</p>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 항공사 사정에 따라 운항 정보 변경 가능합니다

■여행상품 가격표(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려! 부당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도착비자] 도착비자를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도착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합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메니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여행목적지 여행경보단계] 여행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1993-000006호 (충주)주요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텔 2급호텔 이상 2인1실/교동편 항공/비행기(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칭찬/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여행 보험료 22억 1천만원 가입

H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